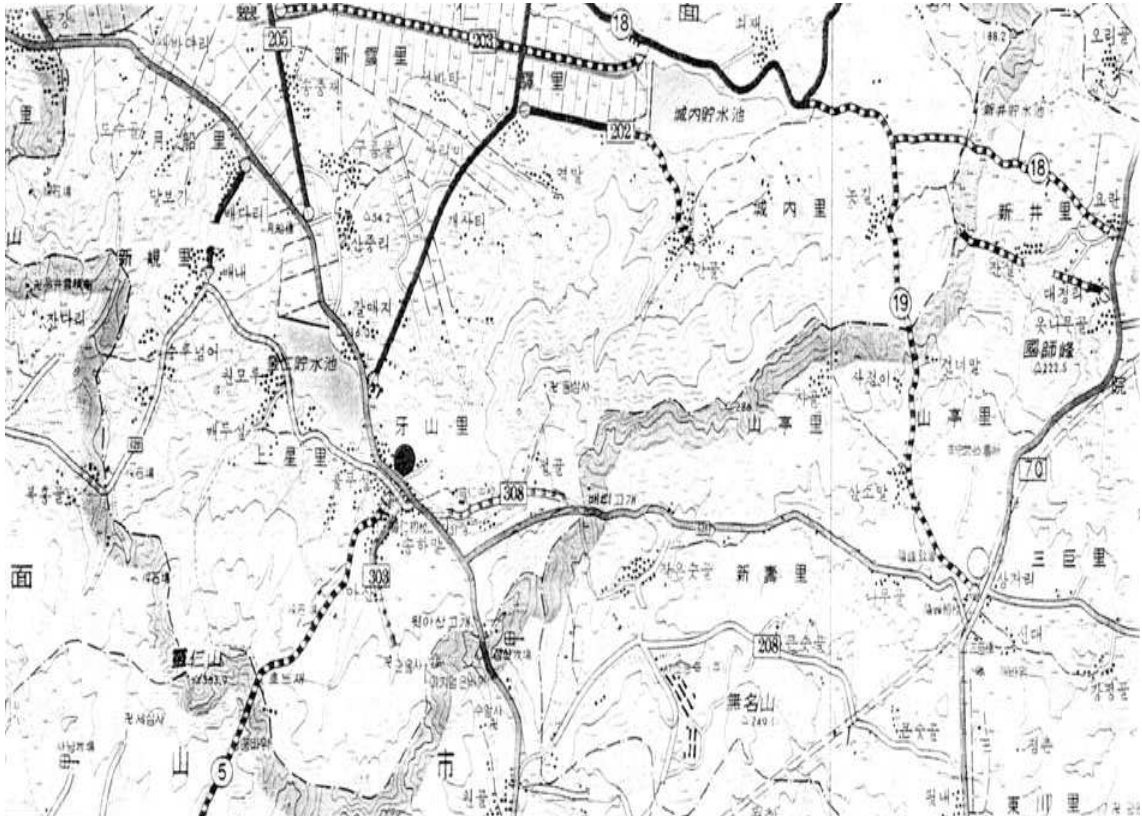


아산리·牙山里

영인면의 한 마을로 네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산리를 자연부락별로 나누어 보면 아산 1리를 웃말(상리또는 송하말),샘거리, 옥거리, 양진말로 구성되어 있고 아산2리는 새터, 장터, 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산3리는 갈매지마을로 구분된다. 마을의 호구수는 349호로 총1,483명이 살고있다. 본래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으로서 아산읍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통산리, 상리, 하리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영인산의 이름을 다서 영산리라 하다가 1922년 아산 군청이 온양읍 온천리로 옮기고 현내면을 영인면으로 고치는 동시에 영산리를 아산리로 고쳤다.

<아산리 위치도>



☒ 웃말, 샘거리, 옥거리, 양진말, 새터, 장터, 절골, 갈매지마을

아산1리 마을은 웃말 (상리또는 송하말), 샘거리, 양진말로 구성되어 있고 아산현의 현청이 있던 곳으로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 이다. 웃말은 객사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전주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여 웃말 또는 송하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산2리 마을은 새터, 장터, 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며,국도변으로 각종 상업이 발달되어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아산3리 마을은 영인 저수지를 등지고 있는 국도변 마을로서 갈매지 또는 통미, 통산 이라고도 한다.

<조사당시 아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아산1리는 남쪽으로 영인산을 등지고 있으며 향교, 여민루, 영인 초등학교, 영인 농업 협동조합, 영인 우체국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산2리마을의 새터 마을은 국도 34호선을 경계로 아산고개를 넘어 약 400m정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새터 마을이 한눈에 금방 들어온다. 영인중학교, 면사무소, 파출소 등이 아산 2리에 있으며, 아산3리는 영인저수지를 등지고 있는 국도변 마을이다.

2) 현 황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소도시를 형성한 아산2리마을이 제일 많은 802명이고 다음이 아산1리가 559명, 아산3리가 122명이다. 생업에서는 아산3리 갈매지 마을이 제일많은 6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아산리를 볼 때 상업과 서비스업에 영인의 다른리보다 많이 나타났다.

- 인구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웃말	559명	288명	271명
새터	802명	390명	412명
갈매지	122명	161명	61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및 기타
------------	---	----	---------

웃말	100%	49%	51%
새터	100%	40%	60%
갈매지	100%	61%	39%

농경기 현황을 보면 새터마을이 66ha로 농경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이 웃말이 51ha 갈매지가 39ha로 조사되었으며 농기계 현황에서도 농경지가 많은 새터마을이 농기계도 많이 갖추고 있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웃말	51ha	24ha	27ha
새터	66ha	43ha	23ha
갈매지	39ha	26ha	13ha

- 농기계보유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웃말	15대	4대	4대	6대	7대
새터	25대	4대	8대	14대	5대
갈매지	9대	2대	1대	4대	2대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웃말	1채	1개	1조	
새터	1채	1개	1조	
갈매지	1채	1개	1조	

- 연령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1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웃말	58	72	64	76	75	42	67	33	12
새터	87	114	112	108	128	78	77	41	13
갈매지	5	24	12	11	10	20	28	11	1

웃말은 김씨 24%, 이씨 22%로, 새터는 김씨가 23%, 이씨도 23%, 갈매지는 김씨 19%, 이씨 13%로 아산리에서는 김씨와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오씨	한씨	신씨	기타
------------	----	----	----	----	----	----	----	----

웃말	24%	22%	3%	7%	0.7%	3%	0.9%	39.4%
새터	23%	23%	9%	3%	3%	2%	3%	34%
갈매지	19%	13%					2%	66%

－ 학생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웃말	17	21	12	7
새터	21	20	15	10
갈매지	8	5	4	4

－ 최고령자

웃말마을은 94세의 이운보씨, 새터마을은 99세의 전연옥씨, 갈매지마을은 81세의 정경희씨이다.

－ 호당평균소득

웃말마을은 년/1,200만원, 새터마을은 년/900만원, 갈매지마을은 년/1,500만원

3) 자연 경관

영인면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과 서쪽으로는 영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영인 저수지를 끼고 있는 마을로서 면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육등 영인의 중심지이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으로서 아산읍이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통산리, 상리, 하리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영인산의 이름을 다서 영산리라 하다가 1922년 아산 군청이 온양읍 온천리로 옮기고 현내면을 영인면으로 고치는 동시에 영산리를 아산리로 고침.

5) 입 향

전주이씨 경명군 파가 약 300여년전에 거주하여 살아온 후손이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며, 후에 진주 류씨가 부자로 살았으나 지금은 다 떠나고 당시 살았던 집만 남아있다.

6) 지 명

새터 : 학다리 옆에 새로된 마을

영인산 : 마을 서쪽에 있는 해발 364m의 산으로 수십리에 걸쳐 산세가 어우러져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1550년대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신성산으로, 1819년 발간된 신정아주지에는 영인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인산이라는 이름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듯 하나 그어원은 고래 6대 임금인 성종 9년 이후 寧仁이라는 별호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 듯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산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용샘이 있고 삼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성(古城)이 돌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성은 신성산성 남쪽의 성은 평택사람들이 피난하여 지었다 하여 평택성이라고 한다.

동림산 : 옛 문헌에는 현 남쪽 7리에 이다고 하였는데 봉우리에 동석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옛보기 산으로 추정되며 지금은 쓰지 않는 지명으로 지금의 삼투봉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함.

동심산 : 영인중학교 위 절골 뒷산으로 옛날에 오래된 절터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으며, 공민왕의 태를 모신 연석이 있었다. 후에 공민왕이 금산으로 옮겨 갔다고 전해옴.

유 산 : 갈매지 앞에 있는 산

숲 : 영인 저수지 초입인 아산 2리와 상성리 초입까지 수천평의 부지에 울창한 나무로 숲이 우거져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숲의 나무에 매달기도 하였다 전해짐. 현재는 영인

저수지와 아산 1, 2리를 관통하는 하천과 인가가 많이 들어서 있음.

휴양림 : 최근에 영인산이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시비등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아산관, 체력단련시설, 사계절 눈썰매장, 극기 훈련장, 헬기장, 민족의 시련과 영광의탑 등을 설치하여 관광 휴양의 명소로 변모하고 있음.

민족의 시련과 영광의탑 : 영인산 엄봉(연화봉 이라고도함)에 세워졌고 1998년 8월 14일에 준공을 하였음.

갈마지<통미> : 아산저수지 제방 동쪽이 되는 외딴 산,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고도함. 그래서 저수지가 생겼다고 전해짐.

절 골 : 영인중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 인조때 이민구가 이곳으로 귀양와서 살았다고 하여, 옛 절터가 있고 공민왕 태를 모셨다가 옮겨갔다고 전해짐. 전에 동심사가 있었는데 폐사되고 현재 새로이 대웅전을 준공하여 동심사라고 명명함.

목탁골 : 아산 2리 현 양조강 뒤쪽의 골목으로 그곳 형상이 목탁같이 생겼다고하여 목탁골이라고 하였으며, 일설에는 사형을 집행할 적에 망나니 등이 목을 쳤던 곳으로 목탁골이라 하였다 전한다.

당나무골 : 아산 2리 이철수이장의 집 부근에 옛날에 당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어 당나무골이라 하였다 전한다.

하천 뚝 : 아산리 면소재 중심으로 흐르는 양 쪽의 뚝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하천이 좁았으나, 김영진이 아산군수로 재임시에 면민들에게 부역령을 발동하여 하천을 넓게하고 양 뚝에 축대를 쌓아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함. 부역 당시에는 부역의 소통을 느끼어 원성과 원망이 많았으나 홍수시 피해를 모면한 후로 현재까지 하수가 원활히 처리되고 있으며 김영진은 안성군수로 전임하자 안성에서도 부근의 하천에 뚝을 쌓아 홍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하천을 정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부처 바위 : 영인산 북동쪽에 있는 바위. 300m가량 죽 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부처처럼 생겼음. 아산이란 지명의 어원이 되는 어금니 바위, 아기업은 바위라고도함.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속설에 이르기를 이 바위로 인하여 수령은 어리석은 미치광이가 되고, 향리들은 모두 흉악하고 간사하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이 일찍이 그 바위에 "괴석이 신기한 부처를 이루어 삼년동안 다섯원을 갈려 보냈다네, 강바람이 부끄럼이 있다면, 눈을 몰아쳐 산의 얼굴을 가리우리라"고 글을 써 놓았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글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세조 5년(1495년)에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이 나라에 아뢰어 아산 땅을 갈라서 온양, 평택, 신창에 불이고 관사와 관청 논 밭은 그때 좌익공신 황수신에게 주었을때도 이 바위의 속설을 빌미 삼았으며, 또한 선조때 명현 토정 이지함은 통인에게 해를 입은 것도 이 바위의 탓으로 전하고 있으나 호사가들이 입담이 아닌가 생각한다.

관 사 : 성황당, 시거소, 교궁, 관노청, 서원청, 장청, 형방, 사창, 삼문, 현사, 군고, 객사, 향청, 작청, 여단, 관청, 내아, 사령방, 책실, 동헌, 흡창작, 염성문, 사직단, 문루, 옥정여,포수청

동 헌 : 현재의 영인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다. 처음에는 동헌이 이곳에서 2리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토정 이지함이 이것으로 옮기었다 한다. 현감이 집무를 하던 곳으로 현감 송병하가 건축한 것은 계유년(1783년) 화재로 전소 되었고 현감 윤경열이 감영에 보고하여 중건하고 기문을 지어 인민당이라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아산군 청사로 쓰이다 1922년 아산군청이 온양읍으로 옮겨가자 영인 면사무소로 사용하다 매각되었다.

관호정 터 : 동헌 남쪽에 있었으며 현감 이태진이 세웠던 정자로서, 이를 노래한 제영 시들이 여러편 남아 있다.

망곡 터 : 국상이 있을 때 현감이 북향하여 곡을 하였던 곳이라고 하며, 현재는 감리교회가 있다. 교회를 짓기 전에는 일본이 승리한 청일전쟁을 기념하여 세운 아산일청전적 기념비가 해방 뒤까지 서 있었고 지금은 아산리 감리교회가 있다.

빙고 터 : 영인 농협에서 동남방 100m지점이 빙고터라고 구전 되며 지금도 그터가 남아 있다. 근처 논에서 겨울이면 여름을 떠다가 빙고 지하에 저장하였다가 여름철에 사용하였다 한다. 이곳은 특이하게 지하가 냉열이었다 하며, 후세 사람이 잘모르고 이곳에 시신을 매장하였는데 유족들 꿈에 망자가 나타나 추워서 못견디겠다고 하여 이장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사직단 : 사단과 직단으로 구분되는데 "사"는 토지의 신을 뜻하고 "직"은 오곡의 곡신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나라를 새로 세우면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비는 사직단을 새로 꾸미고 제

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직은 왕조 또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서울과 각 지방에 모두 설치하는데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치소의 서쪽에 세우게 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서울에서는 사직단(현재의 사직공원)에서 1년에 세 번 제사를 지냈는데 중춘, 중추절의 상술일에 두 번만 지내었다. 나라의 국토와 백성의 무궁을 감싸는 보호신으로 숭앙을 받아온 사직단 제사는 1908년에 폐지되었다. 사직단은 가뭄때 기우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아산현의 사직단은 영인초등학교에서 서쪽 300m지점의 서쪽 산등성이에 있었으며, 현재 김남원씨 집부근으로 터만 남았다.

기우단 : 날씨가 너무 가물면 처음에는 사직단에서, 다음에는 영인산 용샘에서, 그다음은 염치읍 송곡리에 있던 장지못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한다.

당 집 : 김옥균묘소 남쪽 부근 야산에 당집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당 골 : 아산현에는 옛날 관인된 당골(무당)이 6명 있었으며, 매년 정초에는 가가호호 심방하며 안택을 무료로 빌어주었으며 그 대신 마을에서는 보리 수확때에 보리 1말, 가을에 벼 1말씩을 거두어 주었다고 한다.

비석 거리 : 학다리 영인면사무소 앞에 있는 큰길에 현감 이지함, 조해, 이정악, 윤정식, 송미은, 조구호의 선정비들이 나열되어 있다. 원래는 여민루 앞에서 농협앞으로 있었으나 58년 경에 영인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였으며, 이 중 <현감 이지함(李之涵)인화영모비>는 1975년 경 성내 1리 저수지 옆에 있던 것을 당시 면장이던 김사철씨가 옮겨왔다고 한다.

아산향교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향교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향교로서 아산리에 있는 영인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여 약 600m 정도에 위치한다. 이 향교는 아산리 동쪽 향교골에 있었던 것을 선조 8년(1575년)에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으면서 이곳으로 이遷重履했다고 하여 형제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사성오현과 사절, 그리고 국내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봄, 가을로 제정을 올리고 있다. 향교의 건물 배치를 살펴보면 입구에 홍실문이 있고 고직사 겸 외삼문이 있으며, 축대위에 명륜당, 제실,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향교는 가장 잘 보존되어진 향교의 하나로서 아산의 교육적 열의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사마소 : 아산향교 아래쪽에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지되고 옛터만 남아 있다. 연산군 때부터 지방의 사마, 즉 생원과 진사가 모이기 위해 세운 곳, 아산현의 경우 1701년(숙종27년)에 참판 임홍망과 진사 홍서하, 생원 유득기가 건의하여 창건하였다. 모두 8칸의 건물로서 신·구방 사마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매년 봄, 가을에 유림들이 모여서 서로 강신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한다. 운영을 위해 장의 2명, 서 1명, 고직 1명, 사령 1명을 두고 발도 있었으며 세금운반용 배 1척, 보직 20명이 있었다고 한다. 점차 폐해가 심해짐에 따라 조선 후기(17세기) 인조때 들어 폐지되었다.

근민당 : 아산현 동헌 부근에 있었는데 지현(현감) 송병하가 건축하였다고 한다. 회록의 화를 만나 소실된후 윤경렬이 중건하고 그이름을 인민당이라 개칭하여 기문을 지어 현판하였으나, 지금은 옛 모습을 알 수 없다.

구장터 : 학다리에서 양조장을 거쳐 지서까지 장터가 번창하였다.

장 터 : 학다리 부근에 있는 마을이며 아산장이 열렸다고 함. 이것을 기점으로 아산리의 1, 2구의 경계로 삼았다.

학다리 : 영인 초등학교 북쪽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며, 마을 앞 내에 나무로 다리를 높게 놓았다고 함.

학교산 : 아산리 학다리 뒤에 있는 산이며 모양이 아름답고 그 밑에 사대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함.

구향교골 : 객사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아산 향교가 있었는데 선조 10년(1577)에 현감 이지함이 현재의 향교자리로 옮기었다고 함.

절 골 : 뒤에 있는 골짜기이며, 전에 동심사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현재는 암자가 존재하고 있음.

돛목고개 : 아산리에서 음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고개가 안장또는 돛의 목처럼 생겼고 이 고개에 화상을 모신 신당이 있었는데 영험이 매우 있어서 고려때 몽고군이 침입한 때에 몽고군도 성대히 제사를 지냈다하여 주민들이 계속 치성을 드리며 아들 낳기를 빌었다고함.

머굴터 : 아산리에서 남쪽에 있는 작은 고개. 큰바위들이 마치 어금니처럼 생겼으며, 큰 바위에 작은 바위가 얹혀서 애를 업은 것처럼 생겼음.

염티고개 : 아산리에서 염티읍으로 넘어가는 큰고개임 이 고개에 칼바위와 염티읍 서원리의 애기업은 바위불암이 있음.

흐느제 : 아산리에서 염티읍 강청리로 넘어가는 험하고 큰 고개. 예전에는 이곳으로 예산, 홍성 등지로 왕래 하였다.

칼 바위 : 아산리 위 남동쪽에 있는 바위이며, 모양이 칼 같이 생겼음.

여단터 : 새터 뒷산에 있는 여단의 터

비석 거리 : 학다리, 곧 영인면 사무소 앞에 있는 큰 길이며 현감 이지함, 조해수, 이정악, 윤정식, 조구호의 선정비가 나열되어 있음.

양진말 : 양지마을 영인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 햇볕이 잘 들고 영인저수지를 관통하는 아산만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살기가 좋다. 예전에는 백정들이 살아 피촌으로 불렸는데 개를 키우면 잘크지 않는다고 한다.

웃 말 : 객사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전주 이씨가 살고있음.

향교골 : 영인산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아산향교가 있음.

샘거리 : 객사터 앞 동쪽에 있는 마을이며 우물이 있었다고 함.

옥거리 : 영인 초등학교 서쪽 옆의 100m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사마소의 터 : 향교 아래쪽에 있는 터이나 옛날에 폐지되고 다만 옛터만이 존재할뿐이다.

여민루 : 객사터 남쪽 끝 영인 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문루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태종 15년(1415)에 아산 현감 최안점이 부임 3년만에 빈객의 래왕 접대를 위하여 지은 문루이다. 루명은 당시 대문장이었으며 대제학을 지낸 정이오가 지은 루기의 취위민지의를 따서 숙종40년(1714년)에 지중구원부사인 홍정공 임홍만이 여민루라 하였다. 태종 이후에 다시 건조되었는지 혹은 구건물 그 대로인지 알 수 없다.

김옥균의 묘 : 샘거리 뒷산에 있는 개화당의 선구자의 김옥균의 묘.

영인 7층 석탑 : 아산 향교의 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계곡언덕 위에 있는 이 탑은 옥개석과 탑신이 각 2석으로 된 평조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단 지대석 일부가 파손된 것 이외에는 조선 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탑신의 모서리에 격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옛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의 높이가 6.58m에 기단 폭은 1.32m이고 가장 윗부분인 7층 옥개석의 폭은 68cm이다.

관음사 5층석탑(문화재 자료 제 232호) : 관음사 뜰안에 있는 이 탑은 옥개석과 탑신 각 2석으로 된 평조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탑의 상륜부가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기단도 제것이 아닌 것 같다. 탑신의 모서리에 격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측되며 이 근처에 있었던 동림사지의 옛 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의 높이가 2.46m에 폭이 1.55m이며 옥개석 받침은 4단으로 되어있다.

여인 미륵불상 : 조각 연대와 유래는 알수 없으나 마을 안 도로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진 것 같음. 1매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2.5m로 조각 수법이 졸렬하며 양각이 뚜렷하지 못하다. 불상이라기 보다는 승상이다.

영인 산성 : 영인산 꼭대기에 성이 남북쪽으로 둘이 있는데 북쪽성은 돌로 쌓아 그 둘레가 480척, 높이 10척이며 남쪽성은 흙으로 쌓아 그 둘레가 480척 높이 4척으로서 겹성이 되어 있음. 고려 몽고 난리때 평택군 사람들이 여기와서 피난 하였다고 하며, 신성산성 또는 평택성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청덕 선정비 : 아산리 학다리 근처 비석거리 곧 영인면 사무소 앞 큰 길에는 역대 아산 현감들의 청덕 선정비가 있는데 현재는 영인면 사무소내에 토정 이지함선생 좌상 뒷편에 나열되어 있었다.

- 현감 이후 지함인화 영모비
- 현감 조후 해수 선정비
- 현감 이후 정악 선정비

- 현감 윤후 정식 선정비
- 현감 조후 구호 선정비
- 현감 송후 미은 청덕 선정비

열여평산 신씨정려 : 아산 2리 도로에서 상성리 불물실로 향하는 길. 오른쪽 민가 옆에 있는 정 측면 규모로 익공식의 팔자 지붕으로 조형되어 있으며 비에는 열여 평산 신씨 정려라 移書되어 있다.

7) 전설

토정비결 :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이다. 토정 선생이 귀신을 잘 보았는데 자기 조카의 명을 보니까 단명할 것 같아 형수께 말씀하기를 "조카명을 이율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다.내용인 즉 사자밥을 지어가지고 사자오는 길목에 가서 밥을 짓고 짚신과 돈을 준비하여 사자에게 대접을 극진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형수는 토정 선생이 말하는 그대로 하니 과연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다. 형수는 사자를 극진히 대접했다. 대접에 감복한 사자는 되돌아 갔으며 그리하여 조카의 명을 이어 장수하였다고 한다. 소문이 인근에 파다하여 토정선생의 말이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토정 선생은 자신을 갖고 비결책을 내어 사용하였고, 그 비결책이 잘 맞아 오늘날 토정비결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말이 옛부터 아산지방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한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희망과 기쁨인 것 같다. 지성이면 귀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말이라고 믿는다.

당고개 : 아산리에서 음봉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해가 기울고 있다. 정임이는 호미를 내던지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는 멀리 보이는 고개 마루를 바라본다. 남편은 오늘도 오지 않으려나 보다. 이태전 겨울전쟁에 나가기 위해 당고개를 넘어가면서 꼭 돌아온다던 남편 돌이는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며칠전 남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순구가 돌아왔다. 팔이 하나 잘리고 몸은 병들어 그 전의 젊은 모습은 간데 없었지만 마음은 기쁨에 출렁였다. 순구는 남편의 소식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만 같았다. 정임이는 밤마다 남편이 진흙 구덩이에서 허우적이며 정임이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 정임을 보다 못한 순구가 찾아왔다. 돌이는 살아있노라구 아주 높은 사람이 되있노라구..... 정임은 아기를 업고 돌이를 찾아갔다. 여름 띄약별에 낮선길을 간다는 것은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는 힘겨운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된 장군을 구하여 그곳에서 장군의 딸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다. 정임은 아기를 남편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이아이를 키워주세요. 두아내를 갖지 않고도 이런집에서 살수있는 아이로....." 정임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따라 보내던 고개 위에서 지쳐 죽고 말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사당을 지어 그의 혼을 위로 하였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들 혹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사당이 있는 고개라 하여 당고개라 하였다. 당집에 빌면 소원도 모두 이루어 졌다. 몽고군도 지나는 길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영험은 대단했다 한다. 또 일설에는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그여인이 이곳에 배를 타고 나가 자결을 한후 생긴 곳이 배의 돛대목처럼 생겼다하여 돛목고개라고도 한다.

·환혼석에 얽힌 전설

충청도 아산땅에 허씨성을 가진 나뭇꾼 충각이 살고 있었다. 일찍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은 한명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다고 한다. 허충각은 열심히 나무를 장터에 팔아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 이유는 예쁜 색시를 맞이하여 장가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어느날 나무를 장에 내다 팔고 마을 어귀를 돌아가던 길에 어린 아이들이 웃고 떠돌며 노는 소리를 들었다. "하하 그것참 예쁘게 생겼지" "어디 나도 한번 만져보자" 야 단들이었다. 허충각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꼬마가 하는 말이 "학의 알이에요, 제가 저 높은 동우리까지 올라 가서 꺼내온 거예요"하면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허충각은 큰일 났다고 하면서 빼앗으려하자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깨어진 알속에는 새끼가 될 어린 학이 죽어 있었다. 허충각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지 나무위 동우리가 있는 나무까지 찾아온 허충각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학의 긴 주둥이 끝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이 물려 있었다. 어느날 아침 학의 동우리가 있는 곳에 다시와 본 충각은 깜짝 놀랐다. 두 마리의 새끼학이 반갑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해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철이 바뀌자 학들도 충각과 이별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는 듯이 집주위를 맴돌다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다. 반짝거렸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동우리를 살펴보니 예쁜 돌맹이가 놓여 있었다. 신기한 돌맹이 같아서 집

에 가지고 돌아와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나무를 하다 큰 상처를 입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 왔다. 외로운 생각이 들은 허충각은 붉은 돌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눈을 뜨니 아프던 몸이 다 낫고 힘이 솟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충각은 나무를 해놓고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학 한마리가 날아와서 아름다운 선녀로 변하더니 "도련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붉은 돌을 가지고 건너마을 박진사 댁으로 가십시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기한 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허충각은 언젠가 크게 다쳤던 일이 생겼을 때 감쪽같이 상처가 아물어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을 생각하여 그 돌을 가지고 박진사댁으로 갔다. 몇 달 전부터 무남독녀 외동딸이 원인모를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 허충각은 박진사 집엘 찾아갔으나 하인이 앞을 막았다. 그래서 사정사정 하였더니 그 집 하인이 박진사에게 하는 말이 "웬 총각이 병을 고쳐 드리겠다고 와 있습니다. 미친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어 쫓아 내려고 했는데 총각이 아씨의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만일 못고치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박진사의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죽을 목숨 한번 총각에게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자 총각을 데려 오라고 했다.

처녀의 가슴위에 붉은 돌을 올려놓은지 한시간 두시간……. 여러시간이 지났지만 처녀는 죽은듯이 꿈쩍 안했다.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있을때 백지장 같던 얼굴에 으레으레한 핏기가 도는 것이었다. 온 식구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채 법석을 떨었다. 총각은 박진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다. 허충각은 "따님과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박진사는 놀라 딸에게 물었다. 딸은 좋다고 대답했다. 허충각은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그후 붉은 돌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이 사실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 한 욕심장이가 흠치는데 성공해서 중국에 갔다 팔려고 압록강을 건너다 깨끗이 물에 씻었다. 중국에 도착한 욕심장이 도둑은 한약방에 찾아가 붉은 돌을 보이며 사라고 하였다. 약방주인은 천하의 보물인 "환혼석"이라는 것이오하고 말하면서 못쓰게 되어 버렸으니……. 주인장 무슨 말이오 "누군가가 물에 씻어 신비한 효험이 모두 씻겨 나갔소이다. 환혼석은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말았소" 도둑은 헛 고생만 한 생각에 환혼석을 강물에 던졌다. 환혼석은 비록 잃어 버렸지만 허충각은 아름다운 아내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한 다.

옛 성현들의 말씀 그대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마음의 뉘우침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8)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김옥균(金玉均)

철종 2년(1851)-고종 31년(1894), 이조 고종 대의 정치가. 호는 고규, 시호는 충달, 본관은 안동, 철종 2년(1851) 1월 23일 충남 공주에서 출생. 고종 9년(1872) 문과에 장원급제, 옥당승지를 거쳐 호조 참판에 이르렀다. 서구와 일본 문물에 감동하여 독립당을 조직하고 국정 개혁을 주장하였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을 기회로 박영효, 홍영식등과 협력. 사대당의 거두들을 죽인 후 신정부를 조직하였으나 청나라 주둔군의 방해로 3일만에 실패로 돌아가지 일본으로 망명하여 10여년을 지냈다. 그 후 청나라 세력으로 숙지를 달성하려고 상해로 건너갔으나 1894년 3월 28일 상해 동해 양행에서 수구파의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되었다. 청의 관헌은 홍을 보호하였고 군함 위원호로 시체를 한국으로 옮겼다. 조정에서는 반역죄로 몰아 양화진서 시체를 찢는 주형에 처하였으나 이듬해에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자 법무 대신서 광범, 총리 대신 김홍집등의 상소로 죄명을 씻고 관직이 회복되었다. 순종때에는 규장각 대제학에 추종을 받고 관리를 보내서 제사를 지냈다.

·이지함(李之函)

1517(중종12년)~1578(선조11년)의 조선 중기의 학자. 기인 <토정비결>의 저자. 본관은 한산, 자는 형백 또는 형중, 호는 수산 또는 토정 고려말의 학자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현령이치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만형인 지번 밑에서 글을 배우다가 뒤에 서경덕의 문하에 들어가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후일에 그가 수리, 의학, 복서, 천문, 지리, 음양, 술서, 등에 달통하게 된것도 서경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573년(선조 6년)주민의 추천으로 조정에 천거되어 청하(지금의 포천) 현감이 되었고, 재직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아서 많은 생명을 구제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듬해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으나 1578년 아산현감으로 다시 등용되었고, 부임한 즉시 결인청을 만들어 일정한 정착지가 없는

걸인들을 구제하였으며, 노약자와 기인을 구호하였다.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흙담 움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냈으며, 그 때문에 "토정"이라는 호가 붙게 되었다. 토정이 의학과 복서에 밝다는 소문이 점차 퍼지게 되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년의 신수를 보아달라는 요구가 심하여짐에 따라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토정비결>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국의 산천을 두루 다니며 명당과 길지를 점지 하였으며, <농아집>을 저술하여 어진자에게 전하여 난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당대 성리학의 대가 조식이 마포로 찾아와 그를 도연병에 비유하였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죽은 뒤 아산의 인산서원에 제향되었고 1713(숙종39년)에는 학덕이 인정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강이다.

9)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상폭계 : 마을에 사람이 기고하면 돈으로 퇴워 주는 것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이밖에도 마을 주민들 끼리 이름없는 작은 계를 모여서 하고 있다.

10) 종교현황

아산성결교회 영인면 아산1리 목사 조이철 종파: 성결교
영인제일교회 영인면 아산2리 목사 신동진 종파 : 장로교
아산감리교회 영인면 아산2리 목사 김경배 종파 : 감리교
관음사 영인면 아산1리 주지 철언 종파 : 태고종
동심사 영인면 아산2리 주지 향 담 종파 : 조계종
아산향교 영인면 아산1리 전교 한용구

11) 공장현황

미래(주)대표 김지상 아산리 259번지 생산품목 : 철재가공
기영건설 대표 이항섭 아산리 289-1외8 생산품목 : 레미콘, 벽돌
신라소방산업(주) 대표 이정규 아산리601외6 생산품목 : 소방기구
원우산업개발(주) 대표 임익환 아산리 63-10 생산품목 : 콘크리트 타일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옛날 아산현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지 영인에서 가장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마을이다.